

Issue &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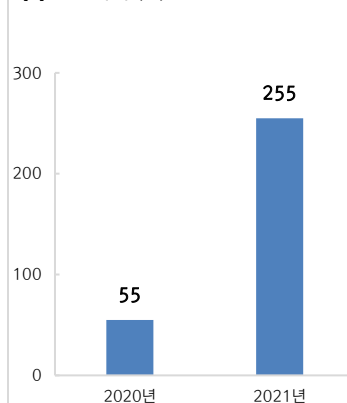
- I. 블랙록, 기후 관련 이유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급증
: 환경 관련 성과가 지배구조에도 영향
- II. 4대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요 이슈 현황
: 중요 이슈의 성과 검증 필요

블랙록, 기후 관련 이유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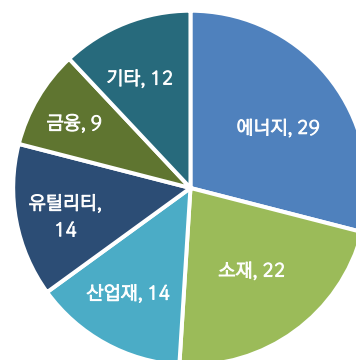
7월 20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지난 1년간¹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Pursuing long-term value for our clients, A look into the 2020-21 proxy voting year)를 발간함. 보고서에 따르면, 블랙록은 기후와 관련된 이유로 255건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전년도(55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블랙록이 반대 의견을 행사한 255건의 산업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산업(29%)과 소재 산업(22%)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산업재(14%), 유틸리티(14%), 금융(9%) 산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블랙록이 기후와 관련된 이유로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한 안건의 수 및 산업별 통계(2020.06.01~2021. 06.30)

[1] 안건의 수(건)



[2] 산업별 통계(%)



*기타: 필수소비재(5), 자유소비재(3), 정보기술(2), 통신(1), 헬스(1)

블랙록은 지속 가능 리스크, 특히 기후 변화 리스크가 곧 투자 리스크를 의미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음. 또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서 투자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략 등을 공개해야하며,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 해당 기업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행사함을 명시하고 있음.

블랙록이 앞서 언급한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 국내 기업의 사례는 ‘한국전력공사’임. 블랙록은 한국전력공사의 석탄 관련 투자를 이유로 임시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주주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힘².

블랙록의 이번 보고서는 기업의 환경과 관련된 성과가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독립적인 요소가 아닌 상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효과적인 ESG 경영을 위해서는 각 요소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ESG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함.

최근 ‘Say On Pay’와 유사한 개념인 ‘Say On Climate’³⁾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같은 추세에서 기업은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모든 의사결정에 ESG를 고려하기 위한 ESG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 등 전사적인 관점에서 ESG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2020년 12월 사업보고서 기준 블랙록(주주명: BlackRock Fund Advisors)이 코스피 상장기업 중 5% 이상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총 9개사임.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 블랙록(주주명 BlackRock Fund Advisors)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코스피 상장기업

기업명	보통주 비율(%)	비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	6.8	지분율 변동 4.95%(2021.05.31)
두산퓨얼셀(주)	6.2	지분율 변동 4.55%(2021.04.16)
(주)엔씨소프트	6.1	
(주)KB 금융지주	6.0	
(주)신한금융지주회사	5.6	
(주)케이티앤지	5.6	지분율 변동 5.02%(2021.01.17)
네이버(주)	5.0	
삼성전자(주)	5.0	
삼성 SDI(주)	5.0	

자료: 각사 사업보고서(2020.12) 및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대신경제연구소

1. 대상 기간: 2020.06.01~2021. 06.30
2. Blackrock, Our 2021 Stewardship Expectations – Global Principle and Market-level Voting Guidelines
3. Say On Climate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계획과 성과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의 피드백을 통해 기업의 비재무공시와 관련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송민지 선임연구원 02-769-3002)

4대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요 이슈 현황

최근 다수의 기업이 2020년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보고서 작성일 기준 (2021.07.23.) KOSPI 200 및 30대 기업집단¹ 소속 상장회사 290개사 중 72개사(24.8%)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 발간 기업은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이슈 중 중요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중요 이슈를 선정하고 있음. 30대 기업집단 중 상위 4개 그룹의 중요 이슈는 다음 표 1과 같음.

표1. 4대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요 이슈

그룹명	발간 기업	상위 5개 중요 이슈*
삼성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SDS,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카드	기후변화 대응 윤리/준법경영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업장 안전 및 보건 제품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오트모터	기술혁신 사업장 안전 및 보건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협력사 동반성장 정책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SK	SK, SK가스, SK머티리얼즈, SK바이오팜, SKC, SK케미칼, SK하이닉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오염 및 유해물질 관리 제품 안전 및 품질 기후변화 대응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
LG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유플러스	임직원 역량개발 지원 및 투자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문화 확산 윤리경영/행동강령 내재화 기후변화 대응 사회/환경을 고려한 기술 혁신 및 R&D

출처: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이슈가 유사한 경우 같은 이슈로 간주

삼성그룹은 16개 상장회사 중 10개사(62.5%)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 중요 이슈 중 선정 빈도수가 높은 이슈는 기후변화 대응, 윤리/준법경영,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업장 안전 및 보건, 제품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 등이 있음. 삼성그룹의 경우 다른 그룹보다 윤리/준법경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지배구조 이슈를 중요 이슈로 다수 선정하고 있음. 이는 지난 1월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등 지배구조 이슈 개선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됨.

현대자동차그룹은 12개 상장회사 중 9개사(75%)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 중요 이슈 중 선정 빈도수가 높은 이슈는 기술혁신, 사업장 안전 및 보건,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협력사 동반성장 정책 등이 있음. 현대자동차그룹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혁신과 협력사 관련 이슈를 다수 선정함.

SK그룹은 19개 상장회사 중 7개사(36.8%)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 중요 이슈 중 선정 빈도수가 높은 이슈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오염 및 유해물질 관리, 제품 안전 및 품질, 기후변화 대응,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이 있음.

LG그룹은 13개 상장회사 중 5개사(38.5%)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 중요 이슈 중 선

¹ 30대 그룹은 2021.05. 공정위 공시기준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 있는 민간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공정자산) 순

정 빈도수가 높은 이슈는 임직원 역량개발 지원 및 투자,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문화 확산, 윤리경영/행동강령 내재화, 기후변화 대응, 사회/환경을 고려한 기술 혁신 및 R&D 등이 있음. LG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임직원 역량개발 지원 및 투자를 중요 이슈로 다수 선정함.

중요 이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된 이슈 관련 성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심형철 연구원 02-769-3969)
